

#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하반기 전공의 449명 모집 나섰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광주 지역 상급종합병원 2곳에 올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인턴) 모집에 나섰다.

사직 전공의가 돌아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 별도 정원'까지 포함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을 통틀어 449명 규모다.

조선대병원은 12일 오전 레지던트 상급년차·1년차, 인턴 채용 공고를 냈다. 모집 기한은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다.

모집 정원은 ▲레지던트 상급년차(2~4년차) 79명 ▲레지던트 1년차 45명 ▲인턴 35명 등 총 159명 규모다.

레지던트 상급년차 각 진료과별 모집

조선대병원 각급 전공의 총 159명 모집 공고 게시  
전남대병원 레지던트 1~4년차·인턴 390명 모집 중  
필기 면제·정원 외 인정... 사직자 복귀 길도 열어 나

정원은 내과 12명, 정형외과 9명, 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각 8명 등이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총 18개 과목에서 총 79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1년차 레지던트는 내과 9명, 응급의학과 4명을 비롯해 총 19개 진료과에서 45명을 뽑는다. 특히 1년차 레지던트 지원자 중 지난해 임용 포기를 포기한 사직 전공의가 이미 합격했던 수련병원과 진료과에

지원하는 경우는 필기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조선대병원은 인턴도 35명 채용키로 했다. 조선대병원은 각급 전공의 응시 지원자 중 올 하반기 모집에 한해 지난해 상반기 합격 이후 사직 전공의가 같은 진료과에 다시 지원해 합격하면 모집 정원을 초과해도 뽑기로 했다.

만약 진료과별 모집 정원보다 원소속

복귀 합격자가 적으면 신규 지원자를 합격시킬 수 있다.

전남대병원 역시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첫날이던 전날 오후 늦게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별도 정원까지 포함해 레지던트 상급년차(2~4년차) 180명, 레지던트 1년차 102명, 인턴 108명 등 총 390명 규모다.

전남대병원 역시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한시적으로 지난해 사직(임용 포기)한 전공의가 재응시해 합격하면 받아들인다.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 진료과에 다시 합격하면 모집 인원을 초과해도 사후 정원으로 인정한다. /오권철 기자



## 광주 대촌중앙초, 복합시설로 증축해 주민에 개방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 돌봄센터·건강증진센터·북카페 등 시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촌중앙초등학교가 선정돼 학교 건물을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증축한다고 12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지자체 등이 협력해 학교 안에 학생, 지역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광주 대촌중앙초를 비롯해 전국 12개 학교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촌중앙초에는 교육부, 시교육청, 남구 등이 총 60억9000만원을 투입해 기존 학교를 지상 3층, 연면적 1568㎡ 규모의 복합시설로 증축한다. 2026년 사전기획영역과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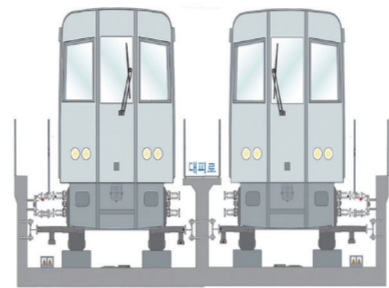
학교에는 초등돌봄센터, 건강증진

센터, 북카페, 다목적교실 등이 들어서며,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해 기존 지역 아동센터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해 운영한다.

또 광주 남구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카페와 다목적교실 등은 지역민에게 개방해 독서·문화·여가 공간으로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광주 북구와 협력해 옛 경양초 부지에 운암북한문화체육센터를 조성했으며, 현재 일곡중 부지에 희망이음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곡중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 교실과 마을온실, 맨발 산책로 등은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학생, 지역민에게 개방한다. /염선호 기자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할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mm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mm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휠체어 다닐 수 있게 대피로 990mm로 확대 광주시, '안전·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전국 최초...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차량-대피로 간 간격은 105mm로 좁혀 발빠짐문제 해소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mm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mm까지 좁혀 발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바로 적용되며, 향후

도시철도 안전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시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민규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9개소를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 공고했다. 인정 예정 공고기간이 지나면 자체 심의를 거쳐 11월 9일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은 영업주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을 장려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수업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

## 광주소방,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9곳 예비 선정

3년간 법 위반 않고 교육·훈련 등 자율관리 실천 업소 대상

반 사실이 없고, 화재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 소방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아 다중이용업소 9개 업소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 예정 업소'로 선정했다.

인정 예정 업소는 ▲카페 지즈(동구) ▲

한국맥도날드 광주쌍촌DT점(서구) ▲이바들감자탕 화정점(서구) ▲투썸플레이스 광주쌍촌DT점(서구) ▲하이골프 아카데미(서구) ▲스타벅스 광주월산DT점(남구) ▲폴덤 일곡점(북구) ▲에정스크린(광산구) ▲버거킹 월계점(광산구) 등 9곳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예정 공고 기간이 끝나면 자체 심의를 통해 11월 9일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현근 기자

정이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에는 인증표지가 부착되고, 영업주에게는 관할 소방서장 표창이 수여된다. 또 향후 2년 동안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네이비 검색하면 별도로 정보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행정·홍보 혜택도 함께 지원된다.

인정 예정 공고문은 광주광역시와 광주 소방안전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로 접수하면 된다. /송현근 기자

광주에서 생산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광주관광공사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2025 비어페스트 광주(Beer Fest Gwangju 2025)'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백성들이 근심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선정을 베푸라는

## '맥주 마시며 DJ 공연' 광주비어페스트 28~31일 열린다

의미의 '불취무귀(不醉無歸), 무제한 적서브러(BREW)'로 결정됐다. 주제 맞춰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 OB맥주 공장에서 생산된 다양한 프리미엄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또 맥주를 마시며 공연을 볼

수 있도록 DJ 공연, 댄스 등이 펼쳐진다. 감성 플라마켓 '브리즈 마켓'에서는 무등산 수박 커피 등 지역 대표 식음료와 조향상품, 목공예소품 등 핸드메이드 제품이 전시되고 커스텀 오브제 만들기 등의 제

행행사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스마트전자제품, 가족식사권, 전시회관람권 등 경품 이벤트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존도 운영된다. 광주관광공사 김진강 사장은 "이번 비어페스트를 통해 광주가 맥주와 음악, 문화가 어우러진 낭만과 열정의 도시로 도약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